

# 제10주제 – 시애틀 올림픽 조각 공원과 ‘창조(적) 도시’

2016년 11월 10일

주제발표 | 서예례 (서울대학교 교수)

초청토론 | 윤희연 (서울대학교 교수)

진행 | 김세훈 (서울대학교 교수)

## 발제요지

**올림픽 조각공원** :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은 유명 조각가의 작품을 설치한 공원으로서, 공원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 그리고 창조도시라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무하고 있던 Weiss/Manfredi Architects라는 회사가 공모전에서 1등하면서 2001년부터 완공된 2007년까지 7년 간 계획에서 시공까지 참여했고, 완공 후인 2008년에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정리 작업까지 수행했기 때문에 책임감과 애착을 느끼는 프로젝트다. 약 15년 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의 대지는 도심 외곽의 빈 공지였다. 시애틀은 도시건설 초기에 대대적인 정지작업을 했을 만큼 경사가 심한 도시이며, 프로젝트 대상지도 바다를 향해 경사가 급하고, 이전에 석유 비축기지여서 땅이 많이 오염된 상태였다. 시 정부, 시애틀아트뮤지엄, 토지 신탁기관(The Trust for Public Land) 등 정부, 민간, 비영리단체의 협력을 통해 땅 매입이 가능했다. 이후에 10여 년 동안 환경 정화를 거치면서 2000년에 대지 정리 작업이 완료되고, 공공 프로젝트로 발전시켰다. 시

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디자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시 정부, 로컬 컨설턴트, 클라이언트, 커뮤니티와 비영리단체의 멤버, 여러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훌륭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지는 크게 3개의 필지로 나눌 수 있다. 대지 남쪽에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차로와 철도, 기존 입구, 부두가 존재했다. 다양한 교통수단의 움직임 때문에 대지의 느낌이 역동적이었고 프로젝트도 역동적일 수 있었다. 인공적인 지형을 조각함으로써 세 가지 필지를 연결할 수 있는 지형 개념으로 접근했다. 지형의 개념을 통해 연결성, 두께, 인접성 등 여러 가능성을 공간적으로 실험해보았다. 그 결과 교통 차원에서는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 제공, 전차길까지 건너갈 수 있는 길,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안전하고 간편한 보행자를 위한 길 등 다양한 수단이 통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토목회사 팀이 매우 창의적이어서 오염된 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토심을 활용하고, 땅의 오염도에 따라 토심의 두께를 다르게 설계해서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때 지형을 계속 측정하면서 지형이 드러나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계획은 크게 하드스케이프(hard scape)와 소프트스케이프(soft scape)로 구분할 수 있다. 하드스케이프는 주로 도로, 포장 등이며, 실제 우수 및 지하수 집수를 통한 자연정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로 하부에 전력, 조명, 통신 등을 포함한 인프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소프트스케이프는 식재 등이다. 큰 대지를 몇 개의 구역으로 분절시켜 각각 북쪽의 숲, 도시공원의 숲, 해안 숲 개념과 나머지 들판의 개념으로 계획했다. 계획 초기에 설치될 조각품의 작가인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마크 디온(Mark Dion) 등 여러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작가들과 조정해서 작업을 재배치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등 협력했다. 코디네이터로서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었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초기 컨셉을 잘 실현하기 위해 여러 사안을 절충하고 예산, 시공 기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다.

파빌리온은 지형과 건물의 구분이 모호한 개념으로 설계되었고 전시와 행사를 위해 활용된다. 대지 북측에 리처드 세라, 중간에 마크 디온, 남측에 테레시타 페르난데스(Teresita Fernandez)의 조각 작품이 있다. 6차로가 대지를 관통하는데 소음이 적은 편이다. 공원의 연결성을 통해 도시의 공간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공원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한다.

토목과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 만들어진 지형이어서 땅을 통해 지탱되는 다리 구조물이 된다. 땅이 가파른 각도로 유지하기 위해 천(fabric)으로 흙과 자갈의 무게를 이용해서 옹벽 역할을 하도록 했다.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옹벽을 커버하면서 가드레일(guard-rail) 역할을 하는 패널시스템으로 건축되었다. 제작과 시공이 지역에서 가능한 공법을 강구한 시스템이므로 지역성이 반영된 것이다. 바다 쪽에 있는 벽은 시애틀 조각공원이라는 큰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

하면서 바다 바로 아래 존재하는 연어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나무들을 배치해서 자연적인 해안가를 연출하는 것 뿐 아니라 연어 서식지를 조사하는 등 생태계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공원 개장 첫 날 4만 명이 방문했다. 공원 공사가 시작되면서 대지 북측에 콘도미니엄이 많이 건축되었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했다. 아직까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창조도시 :** 시애틀에서 올림픽 조각 공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 효과는 무엇일까? 프로젝트가 끝나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의 여러 이슈들, 허가 등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이 작업을 통해 정부, 시민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1996년에 시애틀 아트 뮤지엄의 주요 멤버들이 모여서 소유하고 있던 예술품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조각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비영리단체(The Trust for Public Land)가 주도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공동 명의로 시애틀 시에 신탁하는 절차를 담당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타겟, 국립예술지원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 등이 후원한 현상공모를 통해 디자이너를 찾았는데 뉴욕의 Weiss/Manfredi Architects라는 회사가 당선되었고, 정부, 민간, 개인으로부터 기금이 조성되었다. 연어 보호 단체, 자전거 단체, 전차 옹호자 등 많은 단체의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시애틀의 강력한 시민단체, 대기업, 재력을 지닌 개인들의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역사성과 도시정책적 중요성, 대기업의 존재, 자연경관과 여가생활, 친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발한 풀뿌리(Grass-roots) 문화, 활발한 예술, 문화의 생산과 소비, 주요 교육기관 위치, 다양성 등이 올림픽 조각 공원이 시애틀에서 가능했던 이유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도시 공원의 역사성과 정책이 중요하다. 1908년 올스테드(Olmsted)가 제안했던 계획과 현재 도시공원 계획을 비교해보면 실제 실현된 공원 시스템에서 확장되어 조정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시애틀에는 많은 도시공원이 있는데 움스테드가 설계한 Volunteer Park, Seward Park 외에 기존 공업 시설을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Gas Works Park, 도시고속도로 위에 조성한 Freeway Park 등 새로운 공원들도 있다. 시애틀 시정부(Seattle Parks and Recreation)에서 기부단체, 정부-비영리단체-커뮤니티 연합, 커뮤니티-비영리단체-기부단체-공공파트너 연합, 비영리단체/친환경-지역토지신탁 연합 등 여러 단체들이 조인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근 성공적 프로젝트는 시애틀 도심 공원의 향후 유지 관리 방안, 예산 문제를 다룬 Park Legacy Plan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용산공원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시애틀에는 MS, 스타벅스, 아마존, 보잉(boeing), 코스트코, 익스페디아 등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가 입지하고, 구글, 페이스북 등 첨단기업이 분소를 두고 있다. 2016 미국 커리어 시티 인덱스(Career City Index) 발표에 따르면, 시애틀은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도시로 1위로 선정되었다. 교통 체증과 불편, 주택 부족,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삶의 질(Quality of Life) 순위는 2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애틀을 일하기 좋은 도시 1위로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 1~3위의 도시를 살펴보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이다. 이 도시들의 특징은 대규모 해안 커뮤니티(진보 성향, 인종 문화 다양성, 국제성), 높은 교육 수준(진보 성향, 친환경 건강에 대한 높은 의식, 자녀교육의 중요성, 고급 인력, 다양한 문화생활, 걷기 좋은 도시공간(시민단체, 활발한 풀뿌리(Grassroots) 운동,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중시 도시계획, 도시공원 프로그램 활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공적인 도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첨단 대기업들이 시애틀로 자리를 잡는 이유는 많은 직장인들이 도심 혹은 도심과 근접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보행과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시애틀이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지원과 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 운동(activism)이 활발하다. 그래서 저항정신이 강한 도시이미지가 있다.

활발한 예술,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다. 대표적으로 너바나가 탄생했고 수많은 인디 밴드가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 영화,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가 있어 기술 회사(tech company)를 유치하고 R&D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소수자를 의미) 친화 도시 랭킹에서 7위를 차지했다. 또한 시애틀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시애틀은 다양성과 포용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도시를 창조도시라고 부르고 있으며 시애틀은 종종 대표적인 창조도시로 언급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창조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운 지자체가 증가했다. 2001년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창조 경제(Creative Economy)」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문화를 통해서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는 못했으나 이후 2004년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창조계급의 부상(The Rise of Creative Class)」책이 세간의 주목을 얻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도시들과 높은 순위의 LGBT 친화도시들과 거의 유사했다. 이는 예술가, 건축가 등의 창조계급과 LGBT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경제가 더 활성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리처드 카브스(Richard E. Caves)는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y)」라는 책에서 음악, 미술, 문학 등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산업 진흥을 통해 경제에 부흥이 가능하다고 했다.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네트워크(Creative Cities Network)는 54개국의 116개 도시로 구성된 7개 카테고리의 문화산업(공예&민속예술, 디자인,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창조도시의 네트워크이다. 특히 창조도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중국 상해는 도시에 있던 공장을 외부로 이전시키고 문화산업을 확장하는 공간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초기 창조경제, 창조계급의 개념은 사회적 다양성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는데 창조도시와 문화도시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

이는 과정에서 창조도시의 개념이 변화했다.

창조적 도시공간이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은 커뮤니티, 신뢰, 상호성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인간 자본(Human Capital)은 교육, 훈련, 지식의 가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창조 자본(Creative Capital)은 재능, 관용, 기술을 포함한다. 시애틀 프로젝트 사례의 성공요인과 파급효과를 봤을 때, 인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창의적 개념이 함께 고민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애틀 역시 경제, 교통, 노숙자 문제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 하지만 시애틀의 성공적인 사례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창조도시의 개념과 정책 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초청토론

**윤희연 교수** :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프로젝트 추진 과정, 시애틀의 문화적 배경과 프로젝트 성공 요인, 그리고 창조도시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그동안 창조계급, 창조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창조 계급은 창조적인 직업군 혹은 창조적인 마인드를 지닌 사람(주체)들이 도시의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개념이다. 미국 대도시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심 쇠퇴 문제와 어떻게 그들을 다시 도시로 회귀시킬 것인가에 관한 오랜 고민이 있었다. 창조계급이 어떤 공간을 좋아하느냐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는데 이 주제로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는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라는 책을 통해 소개했다. 테리 니콜스 클락(Terry Nichols Clark)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좋아하는가에 관해 정량적 정성적 연구를 모은 「The City As An Entertainment Machine」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창조계급이 선택하는 곳은 날씨가 좋은 곳, 해안, 산, 물가가 있는 곳 등으로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을 찾아 가는지는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닌데, 정책적으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과 환경을 조성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모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창조도시 개념에 대해 정리하신 내용은 글로벌시티(Global City)의 개념과 유사하다. 엘리트 계층은 국경을 넘어서 일하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과 그 도시들에 관한 연구가 있다. 글로벌 시티의 5가지 지수(index), 즉 비즈니스 활동(business activity), 인간 자본(human capital), 정보 교환(information exchange), 문화적 경험(cultural experience), 정치 참여(political engagement)가 있었다. 5가지 지수는 그 도시가 얼마나 다양하고 관용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창조도시, 글로벌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서예레 교수**는 최근 기사에서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자신의 연구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플로리다 교수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회적 연대, 커뮤니티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창조적인 사람들이 모여면서 창조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고 창조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창조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 것이라는 생각이다. 시애틀이라는 도시의 자본, 시민들의 공공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 기부 문화라는 기반이 있었기에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었고, 강한 시민의식은 공원의 중요성,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가능하게 했고 시애틀 조각공원 프로젝트도 그 결과 중 하나라고 해석하였다.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있고 사회적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 사회가 되어야 사회적 인간적 창조적 자본이 생겨나고 축적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종합토론

**환경문제에 대한 처리: 신지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주무관(33기)**은 시애틀 조각 공원 대지 주변에 차도, 철도 등 각종 교통수단이 지나가는데 미세먼지 수준에 대한 측정이 있었는지, 우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갈 때 정화장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박상권 교통안전관리공단 연구위원(33기)**은 바다로 인한 풍향은 고려되었는지, 지진지역이라고 했는데 내진설계나 대피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서예레 교수**는 대기 질에 관해서는 정보가 없으나 우수 유입에 관례해서 해양식재 전문가가 참여해서 식재와 토양을 이용한 정화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해안가에서 풍향에 의한 파

도로 인한 모래사장 경사를 조정하고, 해수면 아래 토랑, 토질을 조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지진 관련해서는 패브릭으로 감싼 땅을 쌓고, 그 위에 철재 구조물을 얹어 지진 발생 시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 했는데, 이 때문에 지진에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소개했다.

**공원의 관리와 예산: 김지현 부산시의회 정책연구팀장 (337기)**은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관리 주체는 누구이며, 시정부는 관리 예산의 몇 %를 지원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서예레 교수**는 시애틀 아트 뮤지엄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관리 예산은 시정부, 미술관, 기금 등으로 운용된다고 소개했다. 시정부 예산으로는 약 10% 정도를 지원하고, 시애틀 아트 뮤지엄 보드멤버들이 자체적으로 기부를 많이 한다고 밝혔다. 자체적인 수익으로는 결혼식을 통한 수익이 가장 많은데, 개장할 때 이미 2년간 예약이 완료될 정도였다고 한다.

**공공 프로젝트에 있어서 협의와 조정: 엄형원 PMK 대표(337기)**는 실행 단계에서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관이 있었는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서예레 교수**는 조정을 공부하고 토지신탁(Trust for Public Land)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나중에 시애틀 미술관의 디렉터가 된 사람이 협의 조정의 key person의 역할을 해주었다고 소개했다. 시애틀 출신으로서 비영리단체는 물론 지역 및 게이 커뮤니티, 정계, 문화계 등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분이라 넓고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연방 정부나 시정부 차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금 기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런 분이 안계셨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이며 코디네이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협의조정 주체를 시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러한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사회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보았다.